잊지 말고 체크! 체크!!
2016년 달라지는 축산 제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이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된다. 규모화에 따라 축산 농가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가 확대됐고, 증축 불허 규정 등도 폐지된다. 지원 대상 축종도 말을 추가해 대상을 늘렸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융자비율은 50%에서 60%로 높였으며 상환시간도 연장해 운영한다.
당장 등급정보 365+ 취재길에 만난 이들 중 '규모를 더 키우고 싶은데 고민이다' 했던 이의 얼굴이 여럿 떠오른다.
"그렇다네요. 2016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취약 농장 관리 강화

201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가기준도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는 것은 마냥 반길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 결과 2016년 한 해 가축질병 걱정 덜어놓을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사육시설 면적이 50㎡을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내달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닭·오리·메추리·타조·꿩은 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15㎡ 미만의 경우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광역 축산 악취 환경개선 지원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광역 축산 악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실시된다. 기존 지원 사업을 보완해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 처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3개소에 각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제도로서의 지원 뿐 아니라 축산 생산자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냄새나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 제도와 자발적 노력이 두루 시너지를 이뤄 악취와 안녕을 고할 날이 가까워지길 고대한다.

한국-뉴질랜드 FTA에 따른 협력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뉴 FTA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2016년부터 농업 분야 4개 협력 사업과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4개 협력 사업은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수의 역학 분야 공동 워크숍 등이다. 비용은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 양국이 50:50으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 자금의 대출금리가 2%로 0.5~0.7% 인하된다.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 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등은 금리가 2.5%에서 2%로 내려간다.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2.7%에서 2.0%로 낮아진다.

2016년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니 이미 대출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자.